



연세대 컴퓨터과학 합격!

강남대성학원 자연 7반 김동엽

<수험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 자연 7반에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강대에 들어온 재수생들이 그렇듯이, 공부를 웬만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수능 점수를 받고도, 이 점수는 내 실력이 온전히 나오지 않았다며 분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해온 노력이 이대로 부정당하기에는 너무 아깝기에 1년을 더 투자하기로 다짐했었죠. 솔직히 이 점수로 대학을 간다면, 내가 그나마 잘하는 게 공부라는 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컸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으로 제가 강남 대성에 들어온 이후, 저는 선생님들이 거듭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현역 때에 가졌었던 생각이 오만 그 자체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수는 자신의 실력 하나하나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수고 저건 뭐 애초에 맞출 수 없는 문제다'라며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1년을 공부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제대로 공부했다고 자부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생각 하나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였습니다. 혼자 공부를 했었더라면 이러한 생각을 해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조차 못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수도 있었겠죠. 학습방법론을 넘어서 정시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알려주신 선생님들이 돌이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첫 모의고사를 맞이합니다. 저는 현역 시절 모의고사 하나하나에 저의 단점을 찾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제 수준을 확인하고 끝내는 데에 그쳤었습니다. 무작정 친구들 것을 가져다 마구 풀었습니다. 강남대성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은 바로 모의고사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다 라는 가이드라인의 제시였습니다. 쉬어라는 책자의 배포로 맞춘 문제도 어떤 개념에서 파생된 건지, 이를 변형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고난이도 문제도 결국은 여러 가지 개념의 연결이라는 점을 쉽게 납득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킬러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수학 킬러 문제에 대한 불안함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점수에 대한 욕심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둘 째 원인은 강대의 콘텐츠와 수학 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해결했습니다. 정말 특이했다고 느꼈던 점은, 모든 선생님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수학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큰 생각은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실 가장 해결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의 제 논리입니다. 이것에 자신감이 생기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기에, 강대의 시스템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말 자습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외부의 자극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술술 공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가 잡히고 6월 평가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잘 나온 점수에 만족해버린 저는, 이대로 더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잠깐 나에게 보상을 주자는 영똥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더라도, 개인의 생활과 그에 얽힌 사사로운 충동들을 제어하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pc방을 가기 시작했고, 주말 자습 시간을 줄이고 동네 독재하는 친구랑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수라는 것을 매개로 엮인 저와 친구들은 더 동질감을 느꼈었고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계속했고, 더 위험하게도, 중간중간 치는 모의고사들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 평가원, 저는 1컷이 50이었던 화학 1을 심지어 한 문제를 몰라서 틀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멘탈이 완전히 나가 버립니다. 바로 2개월 뒤가 수능인데, 이제 어떡하면 좋지 와 같은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마 이 글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시기에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시기도 하지만, 9평을 못 본 사람들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자극을 받아서, 강대에서 주는 컨텐츠들을 아낌없이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해시태그 과탐 모의고사와 수학 2750컨텐츠가 가장 고마웠습니다.

전자의 경우, 과탐의 특성상 특정 시기에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하는 경우에 매우 좋습니다. 문제의 질을 떠나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시험을 정해진 시간 내에 볼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여타 사설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굳이 대치동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정규 수업시간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비용을 절감해 주었습니다.

수학 2750은 처음 풀 때에는 ‘이게 수능에 나오거나 할까??’ 라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으나, 수능을 2번 치고 수학 시간에 느낀 감정은 이게 이렇게도 나와? 아니 이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휘말리는 순간 끝납니다. 이 컨텐츠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0수능에서는 비킬러에서 비슷한 아이디어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서 수능 수학 시간에 웃음을 지으며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재수를 시작하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힘들기도 한 만큼 중간중간 꽤 기쁜 일도 많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본인이 한 과정 만큼에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공부한다면, 그 자체로 앞으로 무언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결과가 좋았기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재수 1년을 마치고 든 생각은, 어디에 있던지 내가 이렇게만 노력한다면 못할 건 없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땐 그냥 주저앉고 싶어도, 결과보다 값진 과정을 목표로 1년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